색즉시공 무위자연 믿음확증

(고후13:1~13)

4.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5.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 받은 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색즉시공 무위자연 믿음확증>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색즉시공, 무위자연, 믿음확증'
불교에서 말하는 색즉시공과 노장사상에 근거를 둔 도교에서 내세우는 무위자연, 이것들이 어떻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을 확증하라는 사도바울의 이 말씀과 한 지평 위에서 비교될 수 있을까?
여러분, 불교의 색즉시공(色卽是空)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형체들, 나무나 자동차, 집, 사람, 이런 모든 형체들, 이게 본질적으로는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 본질에 무슨 건질 만한 건더기가 없는 허무한 것이라는 겁니다, 속이 텅 비어있는, 그냥 이 세상 전체는 공허함 그 자체인데,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생겨나고 인연을 통해서 형체가 드러나는 것뿐이지 본질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색즉시공이라고 하는 말의 내용을 상식적인 차원에서 간단히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위자연(無爲自然)은 뭡니까?
무위라는 것은 인위, 인간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려 함이 없는 것'을 말해요.
하고자 함이 없는, 하고자 하는 마음과 의도가 없는 함, 이게 바로 무위(無爲)입니다.
그래서 이 무위의 도는 이 자체로 인간의 인위적인 측면과는 다르게 하고자 함이 없는 도로부터 이 자연이 만들어져서, 자연을 가만 들여다보면 자연의 움직임 속에는 어떤 움직임도, 물론 자연 속에는 역동성이 있는데, 그 어떤 움직임도 인위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움직이는 게 없다는 겁니다.
‘하고자 함이 없이 함’ 이게 바로 무위자연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왜 색즉시공을 말하고 무위자연을 얘기합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처럼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가? 만물의 근원이 공기냐, 물이냐, 무엇으로 만물은 이루어졌느냐?’ 이런 것을 알아내기 위한 철학적 행위입니까?
만물의 근원을 따지는 거예요?
색즉시공은 만물의 근원이 공허다, 무위자연은 만물의 근원이 무위의 도에서 나온 것이다.
만물의 근원을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형체의 본질이 공허함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러므로 공허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말라는 얘기를 하려고 색즉시공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자리를 문제시하기 위해서 색즉시공을 얘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무위자연도 마찬가지에요.
불교가 공허함에 마음을 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해요, 공(空)이라고 하는 개념조차도 없어야 된다, 그게 진짜 참 공(空)이라는 거예요.
공허라는 개념이 마음에 있으면 그 단어에 붙잡히면 그것도 역시 색(色)에 붙잡히는 거니까, ‘그런 단어조차도 없어지는 상태가 공허의 마음자리를 발견한 상태다’라는 것이고, 무위자연은 이 공허 대신에 인위성이 없는 자연의 본질인 도에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자연히 이끌려 가는 것, 그러니까 자연과 합일이 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이 무위의 도에서부터 나왔고 그 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연과 하나가 되면 되는 겁니다.
인위성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의욕과 비전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이런 모든 인위성을 다 제거하고 자연과 하나가 되라, 마음자리를 자연에 두라, 라는 얘깁니다.

이렇게 색즉시공을 주장하는 불교와 무위자연을 가르치는 도교가 기독교보다 낫다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낫습니까?
본래의 기독교의 본질이 드러난다고 하면 비교도 안돼요, 근데 작금의 교회 상태를 보면, 그리고 작금의 교회 상태를 기독교라고 본다고 그러면, 불교와 노장이 훨씬 낫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그들은 마음의 문제를 핵심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문제를 놓쳐버렸습니다.
기독교의 관심은 사람의 마음을 어디다 두어야 되느냐, 마음자리를 관심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로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는 이 세상의 삶에서 어떻게 이 육체를 움직임을 통해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 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고 성취를 이루어내고 일을 하고 업적을 쌓느냐, 이것에 관심이 다 가있습니다.

불교에서 본질이 공허하다고 말한 눈에 보이는 색, 현상을 어떻게 일구어낼 것이냐에 다 가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장사상이 말하고 있는 무위 대신에 인위를 가지고 '계획하라, 꿈꿔라, 추진하라' 인위로 가득 차있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색즉시공과 무위자연은 마음자리를 찾으려는 노력의 영원한 오답입니다.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마음자리에 대한 유일한 정답은 기독교만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일한 정답을 갖고 있는 기독교는 마음을 어디다 둘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색즉시공을 주장하는 불교나 무위자연을 말하고 있는 도교의 노장사상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습니다.
이들에게서는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들어낸 답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들의 말대로 마음자리를 찾다보면 마음의 인격성이 해체돼버리고 맙니다.
인간은 더 이상 인격적인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공(空)에다가 마음을 둔 자가 어떻게 인격이 될 수 있으며, 자연과 합일한 자가 어떻게 인격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인격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해요, 하나님이 인격자로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자리를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은 가상하지만 정답이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는 정답을 갖고 있으면서 이 마음자리의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이 세상 삶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업적을 이루고 성과를 이룰 것이냐에만 관심을 둠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다투고 하나님을 삶에서 제거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불교나 도교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의 노력의 결과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름만 남겨두고 실제 하나님은 제거해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이기려 하고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작금의 교회 상태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가?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봅니다.
고린도후서를 사도바울 선생님이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이 바울 선생님의 결론적이고 핵심적인 당부는 우리가 읽은 5절에 들어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 믿음 안에 있는지 바깥으로 나가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시험하고 확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 했지요?
색즉시공이 마음자리를 문제 삼아서 나름대로 만들어낸 답이에요, 무위자연도 마찬가지에요.
그것과 같은 선상에서 믿음의 확증을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도 결국은 마음자리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어디다 둘 것이냐?
마음이라는 것을 육체의 구조에 비유해서 말을 하자면 심장입니다, 가장 핵심부분인 거예요.
인격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심장을 꺼내서 누구에게 주며, 무엇에게 주는가가 믿음의 내용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마음심장을 꺼내서 예수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특별히 5절의 믿음을 확증하라는 말씀 바로 전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다시 말해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게 됨으로써 약함을 드러내지만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런 말씀 뒤에 믿음을 확증하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꺼내서 우리 마음자리로 알고 드려야 될 대상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전서와 후서의 결론인 거예요.
믿음을 확증하라는 것은 ‘너희가 지금 마음을 두고 있는 마음자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인가를 확인하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그리스도께 확인이 되지 않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져 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떨어져 있구나, 하나님과 별개의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쉽게 한번 생활 속에서 믿음을 확증하는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것, ‘아, 돈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 돈에 대해 소원을 합니다.
이 소원이 우리가 마음을 어디다 두고 있는가를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돈이 좀 더 있었으면~ 하고 바란다면 돈에 마음이 가 붙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멋진 아파트를 하나 갖고 싶다 그러면, 내 마음이 아파트에 가 있는 겁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건강에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소원이 내 마음의 소재지를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한다는 얘기는,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둘 때와 확연하게 비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어디다 두고 있는가는 문제 삼고 있지 않고 있어요.
문제 삼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불교는 색즉시공을 말하고 도교가 무위자연을 얘기하면서 마음을 인위적인 것에 두지 말고, 마음을 눈에 보이는 것에 두지 말고 자연과 공허에 두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는 마음의 자리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돈을 갖고 싶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돈 벌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율법사들이 하는 대로 율법주의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내가 행동을 투자하고 행동의 대가를 치르면 돈일 벌릴 것이라는 율법주의의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깁니다.
어떡하면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즉, 돈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불교가 낫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마음이 지금 권력에 가있다는 것을 문제 삼지 않고, 권력에 가있는 상태를 묵과한 채로 어떻게 권력을 쟁취할 것인가만 문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보다 불교가 낫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마음자리를 정한 사람의 소원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세상에 대해 죽는 거로 나타납니다.
왜 세상에 대해 죽기를 소원합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서 마음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지금 현재 여기서,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소원이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가 되지 않는 바람에 불교에서는 공허를 얘기하고, 도교에서는 무위의 도를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계시해주셨으니까 그 계시해주신 하나님 자신을 소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불교나 도교보다 못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시되지 않은 그 자리에서 공허를 보고 자연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지 못해 안달복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확증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계속 십자가에 머물도록 할 수 있을까요?
구약에서 상번제가 드려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선민들이 가나안 땅 전역에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상번제의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상번제가 드려지고 있지만, 그 성전에 있지 않은 다른 모든 때에도, 지금도 예루살렘에서는 상번제가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상번제를 드리도록 하셨을까요?
번제는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나는 살아있는데 왜 죽는다고 말하는 것일까?
내 마음이 세상에 대해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번제 연기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도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될 자고,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만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얘기였습니다.
이 상번제에 담긴 의미를 사도바울이 신약성경에서 십자가를 해석하면서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우리 마음이 십자가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손으로 넘겨져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삶에서 제거하려고 한다는 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해요, 육체로 이루어진 이 세상의 삶이 우리가 이끌어가야 될 삶으로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시지요? 내 삶,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이게 바로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이 우리를 유혹한 결과입니다.
아담이 그 유혹에 넘어간 결과라는 거예요.
육체로 이루어진 이 세상의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고 내 삶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과제입니다.

내 과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 천국이에요.
과제라는 말은 지금 그 하나님과 만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의 과제라는 겁니다.

왜 이 세상에 사는데, 하늘이 과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과제인가?
보이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를 확증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끌려갈 수 있어요.
끌려갈 수 있는데 안 끌려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에 마음을 끌 만한 좋은 게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살아 있는 동안에.
선택할 가능성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사랑이지, 무인도에서 한 여자와 남게 되었는데 그 여자와 결혼하는 게 사랑입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필연 아니겠어요?
사랑에는 필연이 없잖아요, 인격성이 가미돼야 사랑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중에 좋은 것이 많은 가운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분을 선택함으로써 사랑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과제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랑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십자가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과제이고.
그러므로 돈을 많이 벌든 못 벌든, 건강하든 안 하든,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사랑에 맡겨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맡겨요.
이 세상의 삶은 우리의 인위성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꿈을 갖고 추진해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문제라는 얘깁니다.
학자들이 역사성이라고 말하는 것, 이 세상 위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역사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내용이 채워져 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에 소재지를 두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색즉시공과 무위자연은 탁월한 점이 있어요.
마음의 소재지를 문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스의 어떤 철학보다도 탁월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이 그래도 체면을 세울 수 있는 건 소크라테스가 만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

던 관심들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렸기 때문이에요.
동양사상에 비해서 아주 미흡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데 그 동양사상의 우월함이 결론을 내지 못하는 우월함이고 영원한 오류의 답변으로 끝나는 우월함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어디다 둘 것이냐에 대한 정답은 기독교만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께 마음을 줌으로써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 이것만이 정답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믿음을 확증하세요!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봤을 때 십자가가 내 마음에서 사라져버렸고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 있다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다.
십자가에서 보혈로 깨끗해진 마음만 하나님은 거두시기 때문에.
십자가가 망각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이란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믿음을 확증함으로써, 십자가를 잊지 않고 생활화함으로써 우리 마음이 언제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확보하고, 이 땅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통해서 진행되는 완전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더 이상 늦추지 말고 나 자신이 마음자리에 온 관심을 다 두고 삶을 살게 해주셔서, 우리 마음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도달하게 하시며,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행되는 온전한 삶을 오늘 하루 충만하게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